

## 통일과 세계열강

###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학교)

나는 먼저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충격받을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가까운 미래에 자발적인 협상을 통한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기대할 만한 이유는 사실상 없다.

세계사 속에서 두 국가가 협상을 통해 평화·대등 통일은 이론 전례가 없다는 사실이 여러 번 주목 받았다. 예멘이 유일한 예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멘에서는 "평화 통일" 이후 통일 전 남과 북으로 나뉘어 참혹한 내전이 벌어졌다. 바람직한 예로 보기 어렵다.

한국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협상을 통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정치·사회 엘리트가 품고 있는 당연한 우려가 물론 가장 큰 문제이다. 북한의 엘리트는 통일이 될 경우 완전히 소외될 것임을 알고 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불균형을 고려할 때 다른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북한의 의사 결정권자들은 자신들의 목도 하에 북에서 발생한 여러 악행과 폐해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한다. 통일이 평화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악행은 곧 드러날 것이고 북의 지도자들은 분노한 시민들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두려움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한 통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꺼리는 북한의 지도자들을 설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의 엘리트는 북한을 계속해서 분리된 국가로 유지하여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로 한 것이다.

또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한국인, 특히 청년층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에 회의적인 한국 사람들은(타당한 이유가 있다) 통일을 국가 부흥의 원천이 아니라 값비싼 일로 여긴다. 그 엄청난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공산이 크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미래에 가장 현실적이고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의 장기적 평화 공존이라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 이러한 평화 공존이 공식적인 수사(rhetoric)에서는 "통일을 향한 긴 여정의 첫 걸음"으로 표현될 수 있다. 남북한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서 통일을 강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표현 전략은 충분히 일리 있다. 하지만 합리적인 전문가라면 이런 미사여구에 호도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통일의 가능성이 있다. 안타깝지만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솔직히 말해서 "독일 시나리오" 류이다. 즉, 북한 내의 정치 체제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뒤이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북한 국민들이 엘리트층을 밀어내 버려야만 실제 통일이 이루어 질 진정한 기회가 생길 것이다. 30년 전 동독 혁명의 승리 이후 독일에서 벌어졌던 일과 거의 흡사하다.

하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혁명적 흡수 통일은 결코 추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한국의 경우 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흡수 통일은 분명 평화 통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날 경우, 폭력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유혈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력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내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폭력적인 혁명 통일(다시 한번 밝힌다.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통일 방식이다.)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실제 재난이 될 가능성이 크더라도, 재난을 관리해야 하고 가능한 한 완화해야 한다.

이러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 정부가 직면하게 될 문제는 외부 세력의 암묵적 또는 공개적 지원 조치를 보장하는 일이다. 현재 한국의 주변국 중 어떤 국가도 한반도의 통일에는 관심이 없다.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이웃 국가들은 통일 한국이 펼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웃 국가 대부분은 특정한 우려가 있다. 모든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국들로부터 암묵적 통일 수용조차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먼저 중국의 우려부터 다루겠다. 중국의 엄청난 크기와 성장하는 경제를 생각할 때, 이는 당연한 일이다. 정치력과 군사력 측면에 대한 우려인데, 중국의 처지에서 보면, 한국의 통일은 사실상 승리한 남한이 빈곤하고 경제적으로 약한 북한을 정복하는 것이고, 한국의 국경이 중국 국경까지 확대되는 일이다. 이점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우려할 만하다. 왜냐하면, 민주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한국이 부상하게 되면 주변의 강국인 중국이 환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히 여러 한국 단체들이 중국 영토의 상당 부분에 대해 영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중국의 우려는 당연할 수 있다.

한국의 통일에 있어 중국의 지지 또는 최소 수동적 수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중국의 주요 관심사는 한미 군사 동맹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이 한국과의 국경에 군사를 배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큰 전쟁에서 싸웠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히 긴장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남을 통일 한국의 출현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한국의 처지에서 보면, 미국과의 동맹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타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통일 이후 현재 DMZ 북쪽에 미군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보장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와 군사 장비가 무기한 동결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경 문제이다. 중국 측은 '고구려 문제'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나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이 만주에 대한 한국의 '권리' 주장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역사적 근거에 관계 없이(솔직히 말해 15 세기에 벌어진 사건에 기반을 둔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이긴 힘들다), 이러한 주장의 존재 자체가 위험할 수 있고 이미 중국이

통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의구심을 갖는 데 일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현재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 한국과 중국의 미래 국경으로 삼는 것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의 중국 기업들과 중국의 북한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경우, 북한에서 운영되는 중국 기업이 불평등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통일 후 이 기업들의 생존은 필수적이다.

아마도 중국보다 러시아를 안심시키는 일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러시아도 물론 국경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한반도와 러시아 주요 중심부의 지리적 거리를 고려할 때, 미군의 존재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어쨌든 위에서 언급한 통일 한국이 미국 주둔에 대해 합의를 이룰 경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경에 관한 문제나 특히 나선 석탄 운송 항구를 포함한 러시아의 투자 문제도 중국과 같은 해결책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의 정치인과 활동가들은 이러한 조건이 거북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흡수 통일이 미래의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이는 경우에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이러한 조건은 작은 대가일 뿐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지만,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 흡수 통일이 일어날 경우 발생이 확실시되는 재난을 완화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